

장편가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김문희**

<차 례>

1. 머리말
2.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양상
 - 1)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원(原) 텍스트
 - 2)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양상
3. 전고의 독서 역학적 작용과 의미
 - 1) 사대부 여성의 계층적 지식과 교양 제시와 가해적(可解的) 독서화
 - 2) 단어·어구·문장의 변주적 제시와 학습적 독서화
 - 3) 유교적 가치와 현실적 상황 논리의 이중적 제시와 증층적 독서화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장편가문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장편가문소설에서 다양하게 출입하는 전고(典故)가 독자의 독서과정에 어떠한 역학적 작용을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전고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기능과 의미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장편가문소설에 활용되는 전고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부인·여성과 관련된 전고, 남녀의 혼인·애정과 관련된 전고, 부모·형제의 윤리나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 남성의 외모나 재주와 관련된 전고, 선인(善人)의 고난과 관련된 전고,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일정한 작용을 하여 독자가 작품을 탐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선 전고는 사대부 여성의 계층적 지식과 교양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인문사회 분야: KRF-2008-358-A00060]

**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을 제시하여 가해적(可解的) 독서 맥락을 창출한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전고가 단어, 어구, 문장의 형태로 변주적으로 제시되어 독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게 하고 한편으로 독자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확인하도록 하여 장편가문소설을 읽으면서 지식과 교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동일한 전고같은 텍스트에서 유교적 이념을 대변하기도 하고 현실적 상황 논리를 대변하기도 하면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기도 한다.

주제어 장편가문소설, 전고(典故), 사대부 여성독자, 가해적(可解的) 독서화, 학습적 독서화, 중층적 독서화

1. 머리말

전고(典故)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전고는 단어나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어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당대의 작가와 독자가 공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을 전고로 사용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널리 쓰이는 전고를 통해 당대인의 지식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전고를 대거 사용하는 고전소설은 독자들의 지적 취향과 교양에 부합함으로써 독서 효과를 향상시키기도 한다.

전고는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이지만 장편가문소설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많은 전고가 활용되는 소설군이다. 서술자의 서술이나 인물의 대화, 편지, 독백, 내면 심리, 묘사 등 다양한 서사의 문면에서 전고가 활용되고 있다. 장편가문소설의 독자층은 주로 사대부 여성들인데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독서 과정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에서 사대

부 여성들의 지식과 교양의 세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조선시대 여성 독자들의 독서 지형도를 설명하면서 여성 독자들이 읽었던 책의 목록을 언급한 논의와 대하소설의 한자어와 전고가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지적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논의와 『소현성록』의 수신서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전범으로서 여성 인물이 반복되고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조혜란¹⁾은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의 독서 문화를 살펴면서 『소학』, 『내훈』, 『열녀전』, 사서삼경, 『사기』, 『사략』, 『상서』 등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이 다양한 교양서와 소설을 읽었다고 설명한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들은 이데올로기의 피교육자로서 독서를 하였고, 지적인 호기심 및 취향으로서 독서하였으며, 지식 생산을 수반하는 전문적 수준의 독서를 하였다고 논의하고 있다. 장시광²⁾은 대하소설이 사대부가 여성 독자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었는가를 논의하면서 대하소설의 한자어와 전고의 사용을 지적하였다. 사대부가 여성 독자들이 수신서와 경서 등의 교양서 등을 통해 알았던 한자어와 전고를 대하소설에서 재확인하고 재음미하면서 사대부가 여성의 지적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임치균³⁾은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대장편소설의 여성 수신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소현성록』에는 태임과 태사 같은 전범이 되는 여성 인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독자들은 『소현성록』을 읽으면서 태임과 태사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서 독자들은 그 인물의 전범적 행위를 분명하게 인

1) 조혜란, 『조선시대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8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32~52쪽.

2)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29집, 동양고전학회, 2007, 164쪽.

3) 임치균, 『대장편 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한국문화연구』13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83~109쪽.

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태임(太任)과 태사(太姒)가 『소현성록』의 전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전고는 매우 흔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편가문소설에서 전고의 기능과 의미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전고는 작가의 서술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장편가문소설의 독서에 일정한 효과를 창출한다. 곧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됨으로써 독자가 작품을 읽으면서 이에 대한 일정한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본고는 장편가문소설을 대상으로 장편가문소설에서 다양하게 출입하는 전고가 독자의 독서과정에 어떠한 역학적 작용을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 이 전고들이 독자의 독서 과정에 작동하는 독서 역학적 효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은 장편가문소설 중에서 한 계열로 묶을 수 있는 삼대록계 장편가문소설이다.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중 다섯 작품이 최근에 현대어로 완역되었는데 『소현성록』(조혜란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현몽쌍룡기』(김문희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조씨삼대록』(김문희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유씨삼대록』(한길연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임씨삼대록』(김지영 외 역주, 소명출판, 2010)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인용되는 책의 권수와 쪽수도 이 책에 의거한다.

2.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양상

1)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원(原) 텍스트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출전이 되는 텍스트의 세계는 다양하다. 경전, 역사서, 사상서, 수신서, 교양서, 지리서, 일화집, 소설류, 문집류, 한시, 명문 등 다양한 종류의 문헌과 문장들이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바탕이 된다.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원(原) 텍스트가 되는 문헌들을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전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어』, 『맹자』, 『소학』, 『시경』, 『서경』, 『주역』, 『의례』, 『예기』, 『춘추좌씨전』, 도가의 경전이라고 지칭되는 『열자(列傳)』, 『도덕경』 등에 실려 있는 내용들이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로 인용되고 있다. 특히 장편가문소설에는 『시경』, 『논어』, 『맹자』 등의 내용이 일정한 유행성을 띠고 전고로 대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역사서에 실린 역사적 사건이 작품 속에 인용되며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로 활용된다. 『사기(史記)』, 『십팔사략(十八史略)』,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촉지(蜀誌)』 등에 수록된 중국의 역사적 사건과 내용들이 장편가문소설의 문맥에 따라 인용되어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 장편가문소설의 현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작용한다.

장편가문소설에는 여성 수신서라고 할 수 있는 『열녀전』, 『내훈』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있고,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읽혔던 『명심보감』과 『동몽선습』의 내용도 전고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가의 사상서인 『한비자(韓非子)』, 전국시대(戰國時代) 전략가의 책략을 편집한 『전국책(戰國策)』의 전략가의 이야기와 병법의 내용이 전고로 나타나기도 하며, 신선 전기집(傳記集)인 『열선전(列仙傳)』, 유향(劉向)이 편집한 고사집(故事集)인 『신서(新序)』 등의 내용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다.

문학류는 유명한 한시(漢詩)나 시부(時賦), 명문(名文) 등이 대화나 편

지, 상소문에서 인용되기도 하며 그 당대에 널리 읽혔던 소설들의 인물이거나 사건이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로 들어오게 된다. 소설류는 『전기(傳奇)』, 『태평광기』, 『요재지이』, 『전등여화』, 『서상기』, 『평요전』, 『구운몽』의 인물이나 사건이 장편가문소설에 거론되고 현재 읽고 있는 장편가문소설의 문맥에서 원 텍스트의 내용이 환기되며 장편가문소설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활용된다.

2)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양상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바탕이 되는 원 텍스트가 다양한 만큼 전고의 내용도 다양하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소현성록』(15권 15책), 『현몽쌍룡기』(18권 18책), 『조씨삼대록』(40권 40책), 『유씨삼대록』(20권 20책), 『임씨삼대록』(40권 40책)의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보면 이 작품들에는 인물, 역사적 사건, 어구, 시구, 문장, 지명 등이 전고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작품의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형성을 띠고 들어오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소현성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유씨삼대록』, 『임씨삼대록』의 전고는 작품마다 다른 측면도 있지만 작품의 문면에서 유사한 전고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작품에서 두 작품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거나 한 작품 안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는 전고의 의미와 구체적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다섯 작품 전체와 개별 작품에서 반복되는 전고를 내용상 큰 항목으로 묶어서 나누어보면 부인·여성과 관련된 전고, 남녀의 혼인·애정과 관련된 전고, 부모·형제의 윤리나 가정사와 관련된 전고,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 남성의 외모나 재주와 관련된 전고, 선

인(善人)의 고난과 관련된 전고,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 등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여성·부인의 부덕(婦德)과 내조	태임(太任)·태사(太姒):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주선강후(周宣姜后):소현·현몽·조씨·임씨,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경강(敬姜):현몽·조씨, 번희(樊姬):소현·조씨·임씨, 관저(關雎):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규목(楸木):소현·현몽·유씨·임씨, 행채(荇菜):현몽·조씨·유씨, 갈담(葛覃):현몽·조씨·임씨, 『시경』의 주아(周雅)의 풍모:소현·유씨·조씨·임씨, 봉영집옥(奉盈執玉):현몽·조씨·유씨
추녀의 부덕(婦德)	맹광(盟光)의 거안제미(擧案齊眉):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무염(無鹽):소현·현몽·조씨·임씨, 제갈공명의 아내 황씨:조씨·임씨
여성의 절개	백희(伯姬):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반소(班昭):현몽·조씨·유씨, 공강(共姜):유씨·임씨, 추결부(秋潔婦):소현·임씨
덕 있는 계모	목강(穆姜):소현·현몽·조씨
부인의 행동규범	여자유행(女子有行)이 원부모형제(遠父母兄弟)라:현몽·조씨·유씨, 백리외불분상(百里外不奔喪):유씨·임씨, 부인(婦人)은 복어인(伏於人)이라:소현·조씨, 삼종지도(三從之道):소현·조씨
투약한 여성	여후(呂后):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측천무후(則天武后):현몽·조씨·유씨·임씨, 여희(驪姬):소현·현몽·유씨, 진황후의 장문궁(長門宮):소현·유씨, 위징(魏徵)의 처:소현·유씨
음탕한 여성	매희(妹喜)·달기(妲己):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미녀를 비유하는 상황	조비연(趙飛燕):소현·조씨·유씨·임씨, 서시(西施):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양귀비(楊貴妃):소현·유씨·임씨, 여와낭랑(女媧娘娘):현몽·조씨·임씨, 당체지화(唐棣之華):소현·유씨·임씨, 동가녀(東家女):현몽·조씨·임씨, 이부인(李夫人):소현·유씨, 미목변혜(美目盼兮)교소천혜(巧笑倩兮):조씨·임씨, 침어낙안지용(沈魚落雁之容):소현·현몽·유씨, 폐월수화지태(閉月羞花之態):소현·현몽·조씨·유씨, 경국지색(傾國之色):현몽·조씨·유씨, 서중유녀안여옥(書中有女顏如玉):소현·조씨·유씨·임씨

4) 이 밖에도 우정과 관련된 전고, 기타의 전고를 추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전고만을 제시했다.

문재(文才)의 여성	소약란(蘇若蘭)의 직금도(織錦圖):소현·조씨·임씨, 사도운(謝道韞)의 영설지재(詠雪之才):소현·유씨·임씨
박대당하는 여성	반첩여(班婕妤)의 장신궁(長信宮)의 한/백두음(白頭吟):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진황후(陳皇后)의 장문궁(長門宮):소현·유씨·임씨, 장강(莊姜)의 백주시(柏舟詩):현몽·조씨·유씨, 탁문군(卓文君)의 백두음(白頭吟):소현·조씨·유씨·임씨, 오기(吳起)의 차:소현·현몽·조씨
조강지처에 대한 대우	송홍(宋弘):소현·현몽·조씨·유씨

〈남녀의 혼인·애정과 관련된 전고〉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을 합리화하는 상황	관저(關雎)/하주숙녀(河州淑女)/저구(雎鳩)새:소현·유씨·현몽·조씨·임씨, 건상섭진(襄裳涉漆):유씨·임씨, 상림(桑林):소현·조씨·유씨
남녀의 사랑 묘사	초대(楚臺)/양대(陽臺)/무산(巫山)/요지(瑤池):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남교(藍橋)의 숙녀:현몽·조씨·임씨, 투향(偷香):유씨·임씨
여자의 개가(改嫁) 합리화	탁문군(卓文君)의 개가(改嫁):소현·현몽·조씨·임씨, 진평(陳平) 아내의 다섯 번 개가(改嫁):소현·현몽·조씨
부부의 화락	관저지락(關雎之樂):소현·현몽·조씨, 연리(連理) 비익조(飛翼鳥):소현·조씨·유씨·임씨
부부의 불화	종풍자포(終風且暴):유씨·임씨
여자가 혼인할 시기	도요(桃夭)/도요(桃夭)의 시(詩)/도요(桃夭)의 시름/도요상년(桃夭祥年)/도요지년(桃夭之年)/도지요요(桃之夭夭):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사위를 맞는 일	동상(東牀)의 결승(結繩):소현·현몽·조씨·유씨
혼인	주진(朱陳)의 호연(好緣):소현·현몽·조씨·유씨, 백량우귀(百兩于歸):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부모·형제의 윤리, 가정사와 관련된 고사〉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효자	증자(曾子):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노레자(老萊子):현몽·조씨·유씨·임씨, 황향(黃香)의 선침(扇枕):소현·조씨·유씨·임씨, 민자건(閔子騫):소현·조씨·임씨, 왕상(王祥):소현·현몽·조씨·임씨, 악정자춘(樂正子春):소현·조씨·임씨, 괘거(郭巨):소현·현몽
효녀	제영(緹縈):소현·현몽·조씨, 조아(曹娥):소현·현몽·조씨·유씨, 진효부(陳孝婦):소현·조씨, 목란(木蘭):소현·조씨·임씨

불초한 아들과 어질지 못한 아버지	요(堯)임금의 아들 단주(丹朱):현몽·조씨·유씨, 순(舜)임금의 아들 상균(商均):현몽·조씨·유씨,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瞽叟):현몽·조씨·임씨
악한 형제를 죽여야 하는 상황	주공(周公)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죽인 일: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현명한 아버지의 태도	부위자은(父爲子隱)직재기중(直在其中):소현·유씨·조씨, 지자(知子)는 막여부(莫如父)라:조씨·유씨·임씨
가족(부모·자식·아내)을 잃은 슬픔	육아지통(蓼莪之痛):소현·현몽·조씨·임씨, 상명지통(喪明之痛):현몽·유씨·임씨, 서하지통(西河之痛):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고분지통(叩盆之痛):유씨·임씨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모범적인 임금	요순(堯舜)임금: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탕왕(湯王):현몽·조씨·임씨, 문왕(文王):유씨·조씨·유씨·임씨, 무왕(武王):조씨·임씨
경계해야할 임금	걸왕/주왕:소현·조씨·유씨
인재를 구하는 태도	주공(周公)의 토포악발(吐哺握髮):현몽·조씨, 삼고초려(三顧草廬):조씨,유씨
임금의 검소한 태도	탕왕(湯王)의 육사자책우상림(六事自責于桑林):조씨,임씨, 토계삼등(土階三等)의 모자(茅茨)를 부전(不剪)하다:조씨·임씨
임금에 대한 충	보천지하(普天之下) 막비왕토(莫非王土) 솔토지민(率土之民) 막비왕신(莫非王臣):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엄격한 법치	약법삼장(約法三章):현몽·조씨·유씨·현몽
잘 다스려진 나라	도불습유(道不拾遺):현몽·유씨
충신·직간신	급장유(汲長孺):소현·현몽·조씨·유씨, 위징(魏徵):소현·조씨·유씨, 소무(蘇武):조씨·유씨, 용방(龍逢):소현·현몽·조씨·유씨, 비간(比干):소현·현몽·유씨, 기신(紀信):현몽·조씨
지략 있는 신하	장량(張良):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진평(陳平):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한신(韓信):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소현·조씨·임씨, 제갈량(諸葛亮):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태공망(太公望):소현·유씨·조씨
장군의 빼어난 계략	운주유악(運籌帷幄) 결승천리지외(決勝千里之外):현몽·조씨·임씨

〈남성의 외모, 재주와 관련된 전고〉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미남을 비유하는 상황	이백(李白):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송옥(宋玉):현몽·조씨·유씨, 두목지(杜牧之):현몽·조씨·유씨·임씨, 반악(潘岳):소현·현몽·조씨·유씨·임씨, 하안(何晏):소현·조씨·임씨, 위개(衛玠):소현·현몽·조씨, 왕자진(王子晉):조씨·임씨
빼어난 외모 귀중한 존재	연성보배(連城之璧)/화씨지벽(和氏之璧)/형산(荊山)의 옥(玉):소현·조씨·유씨·임씨
빼어난 문재나 재주	도연명(陶淵明):소현·조씨, 두보(杜甫):소현·조씨, 왕희지(王羲之):소현·조씨·유씨·임씨, 칠보시(七步詩):소현·조씨·유씨·임씨
활솜씨	양유기(養由基)의 천양지재(穿楊之才):소현·유씨

〈선인(善人)의 고난과 관련된 전고〉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선인의 고난 상황	서백(西伯)의 유리지액(羨里之厄):조씨·임씨, 한신(韓信)의 기식어표모(寄食於漂母) 수욕어과하(受辱於跨下):현몽·조씨
선인의 억울한 상황	수지오지자웅(誰知烏之雌雄):조씨·유씨, 수재누설(難在縲紲) 비기죄야(非其罪也):조씨·유씨

〈행동 규범과 관련된 전고〉

전고의 의미	전고의 구체적 양상
예의 중요성	비례물시(非禮勿視)와 비례물청(非禮勿聽):조씨·유씨
인내의 중요성	소불인즉난대모(小不忍則難大謨)소현·조씨·임씨
천명의 정당성	천여불수(天與不受)면 반수기양(反受其殃)이라:소현·조씨·임씨
악인의 개과천선	고치는 것이 귀하다:조씨·유씨, 인지장사(人之將死)의 기언(其言)이 선(善)하고 조지장사(鳥之將死)의 기명비(其鳴悲)라:현몽·유씨

3. 전고의 독서 역학적 작용과 의미

1) 사대부 여성의 계층적 지식과 교양 제시와 가해적(可解的) 독서화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작가와 독자가 지식과 교양을 공유하여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독자가 읽기 쉬운 텍스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장편가문소설은 사대부 여성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교양을 다시 전고의 형태로 재배치하고 작품의 상황과 문맥에 맞추어 독자들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 사대부 여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독서 맥락을 형성한다. 장편가문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는 단어, 어구, 문장 형태로 제시되는 전고를 발견하고 전고의 원천이 되는 원 텍스트의 내용을 기억하게 된다. 그런 후에 독자는 원(原) 텍스트의 내용을 현재 읽고 있는 텍스트의 맥락과 내용에 병렬시키고 현재 읽고 있는 장편가문소설에 제시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전고를 수용한다.

장편가문소설의 주 독자층인 사대부 여성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생활에서 경전류, 역사서, 여성 수신서, 사상서, 문집류, 시문류, 소설류 등을 읽게 된다. 사대부 여성들은 이와 같은 원 텍스트를 한 번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읽기를 거듭하면서 그 내용을 외우거나 머릿속에 저장한다. 사대부 여성들이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교양은 사실상 사대부 여성들의 훈육과 교육을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권유하고 주입한 지식과 교양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사대부 여성들이 개인적 선호나 재미로 읽은 독서물에서 얻은 지식과 교양일 수 있다. 경전류, 역사서, 여성 수신서, 사상서에서 얻은 지식과 교양이 전자의 성격을 띠다면 문집류, 시문류, 소설류에서 얻은 지식과 교양은 후자의 성격을 띤다.

특히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에서 우리는 사대부 여성 독자층의 지식과 교양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장편가문소설

에서 반영되는가를 논의할 수 있다. 2장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장편가문소설의 전고의 원 텍스트는 다양하고 원 텍스트에서 뽑은 전고의 범위 또한 매우 넓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 ‘남녀의 혼인·애정과 관련된 전고’가 두드러진다.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덕(婦德)과 내조, 절개, 행동 규범, 미모, 여성의 처지를 표현하기 위한 전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부덕과 내조, 행동 규범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고는 조선조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이념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교적 가치를 역설하는 또 다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덕과 내조라는 덕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의해 사대부 여성들의 지식과 교양의 정도가 결정된다. 부덕과 내조와 관련된 전고를 꿰고 있고 이것을 막힘없이 술술 말할 수 있어야 지식과 교양을 가진 사대부 여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부덕과 내조가 조선조 사회가 요구하는 사대부 여성의 내면적 덕목이라면 여성의 미모는 조선조 사회가 요구하는 사대부 여성의 외면적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는 역사서, 문집류, 소설류, 한시, 시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미모를 갖춘 여성들이나 그런 여성을 묘사하는 어구들이 일정한 유형성을 띠며 인용된다. 여성의 미모와 미색은 부덕과 더불어 조선시대에서 여성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은 부덕과 미모를 두루 갖춘 여성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인식을 사대부 여성 독자층에 각인시키고 있다. 이처럼 조선조 사회는 여성에게 부덕과 미모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여성의 지식과 교양 세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에게 박대당하는 여성에 대한 전고가 두드러지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남편에

게 박대당하는 여성은 반첩여, 진황후, 장강, 탁문군 등과 같은 여인이 거론되거나 이들이 읊었던 백두음(白頭吟), 백주시(栢舟詩)나 이들이 유폐되었던 장신궁, 장문궁 등이 인용되며 장편가문소설에서 남편에게 박대당하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인물의 삶과 병렬된다. 여성 고난담은 장편가문소설의 중요한 사건인데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고난은 남편의 박대라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에서 살아가는 사대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남편의 박대는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환기한다. 여성의 부덕(婦德)과 현우(賢愚)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박대당하는 여성의 딱한 처지는 사대부 여성들의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사대부 여성의 일상적 삶의 문제가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나고 유사한 상황을 표현하는 전고가 장편가문소설의 서사 맥락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남녀의 혼인·애정과 관련된 전고’의 내용을 들여다보아도 사대부 여성의 일상적 관심사가 그들의 지식과 교양 체계를 형성하게 하는 또 다른 기반임을 알 수 있다. 장편가문소설에는 남녀의 혼인, 남녀의 애정, 사랑 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고가 많이 활용되는데 『시경』 시편의 제목이나 구절이 그대로 들어오거나 문집류나 소설류에서 회자되는 남녀의 애정담의 내용이 전고로 동원된다. 혼인과 애정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사회적 요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욕망의 영역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혼인과 애정은 사대부 여성들의 지식과 교양의 세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대부 여성들의 일상적인 관심이 사대부 여성들의 계층적인 지식과 교양의 체계를 형성하게 하고 장편가문소설은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관심을 전고로 반영하여 작품 속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대부 여성들의 지식과 교양 세계는 사대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사대부 여성 자신의 경험과 선호라는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일상의 경험에서 체득한 관심사에서 구축된 계층적 지식과 교양을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를 통해 재확인하게 된다.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여성의 부덕과 미모를 중시하는 조선조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박대당하는 여성의 처지와 남녀의 혼인과 애정이라는 사대부 여성의 일상적 삶의 관심사에서 촉발되는 지식과 교양의 단층면을 제시하여 사대부 여성 독자들이 작품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한다. 이런 이유로 장편가문소설은 사대부 여성의 계층적 지식과 교양 세계에 부합하는 텍스트가 될 수 있었고 사대부 여성들의 읽을 만한 텍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단어·어구·문장의 변주적 제시와 학습적 독서화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전고의 출전이 되는 원 텍스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단어를 제시하여, 이것을 반복하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전고를 단어, 구절, 문장으로 변용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장편가문소설의 독자는 이러한 전고의 다양한 변주적 제시를 통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전고의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다시 한 번 원 텍스트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가지게 된다. 곧 장편가문소설에는 같은 내용의 전고를 단어로 반복하거나 단어, 어구, 문장으로 변주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끌어내어 현 텍스트의 맥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독자가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지식을 전고를 읽으면서 완전하게 이해하여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학

습적 독서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사대부 여성 독자층의 지식과 교양을 숙련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단편소설은 짧은 분량 때문에 전고가 정해진 단어나 문장으로 일회적으로 제시되는 데 비해,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전고가 반복과 변주의 방법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독자가 지식과 교양을 숙련하게 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은 한 작품 안에서나 혹은 다른 작품끼리도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전고를 다른 단어, 어구, 문장으로 변주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예를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단어·어구의 변주적 제시

· 태임(太任)과 태사(太姒) - 임사(任姒), 관저(關雎), 갈담(葛覃), 규목(槻木), 행채(荇菜)

· 아황(娥皇)과 여영(女英) - 황영(皇英), 이비(二妃), 상비(湘妃), 소상반죽선(瀟湘班竹扇)

· 주진지호(朱陳之好) - 주진(朱陳)의 호연(好緣), 주진(朱陳)의 호사(好事), 주진(朱陳)의 친함, 주진(朱陳)의 좋음

· 초대(楚臺) - 양대(陽臺), 무산(巫山), 요지(瑤池), 초왕(楚王)의 꿈, 운우지정(雲雨之情), 운우지락(雲雨之樂)

· 도요(桃夭) - 도요작작(桃夭灼灼), 도지요요(桃之夭夭), 도요(桃夭)의 시(詩), 도요(桃夭)의 시름, 도요상년(桃夭祥年), 도요지년(桃夭之年)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전고를 다른 단어나 어구로 제시하는 경우는 위의 예에서처럼 두 인물의 이름을 두 자로 줄여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같은 내용의 전고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두 인물의 이름을 두 자로 줄여서 표시하는 것은 비교적 분량이 짧은 고전소설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전고를 다른 단어나 어구로 변주하여 표현하는 것은 장편가문소설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전고의 제시방법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태임(太任)과 태사(太姒)는 장편가문소설에서 부덕의 대명사로 인용되는데 태임과 태사를 줄여서 ‘임사’라고 표현하고 하고 『시경』의 ‘관저(關雎)’, ‘행채(荇菜)’, ‘갈담(葛覃)’, ‘규목(槻木)’의 제목만 제시하면서 태사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임사’라는 표현은 그 쓰임이 굳어졌기 때문에 현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태임과 태사가 행했던 부덕과 내조의 의미가 그대로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경』의 ‘관저’, ‘행채’, ‘갈담’, ‘규목’이 태사와 같은 요조숙녀와 부덕을 갖춘 여성 주인공을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화된 연상과 추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저’, ‘행채’, ‘갈담’, ‘규목’은 『시경』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명으로 태사의 부덕을 읊은 시들을 가리킨다. 각각 ‘관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채’는 그 ‘관저’ 3장 중 제 2장과 제 3장의 시를 가리킨다. ‘갈담’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목’도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들은 하나같이 태사의 부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현 텍스트에서 인용되는 ‘관저’, ‘행채’, ‘갈담’, ‘규목’이 각각 무슨 내용으로 되어있는가를 떠올리고, 이 시에 덧붙여 있는 『시경』의 세주(細註)를 알고 있어야만 이 시들이 문왕의 아내인 태사의 덕을 읊은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후에 이 시들이 태사의 부덕을 칭송하여 ‘여성의 부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추상화할 수 있어야만 현 텍스트에서 인용되는 ‘관저’, ‘행채’, ‘갈담’, ‘규목’의 시 제목만 보아도 여성 주인공의 부덕을 표현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서 흔히 쓰이는 ‘도요(桃夭)’라는 단어는 여성 인물이 혼인을 해야할 시기임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시경』의 ‘도요(桃

夭’라는 시에서 그 의미가 유래되는데, ‘도요(桃夭)’라는 시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요’ 제 1장의 내용인 “도지요요(桃之夭夭), 작작기화(灼灼其華). 지자우귀(之子于歸), 의기실가(宜其室家)”의 시구가 장편가문소설에서는 부분 부분에서 등장한다. ‘도지요요(桃之夭夭)’, ‘도요작작(桃夭灼灼)’ ‘도요(桃夭)의 시(詩)’, ‘도요(桃夭)의 시름’, ‘도요상년(桃夭祥年)’, ‘도요지년(桃夭之年)’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활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시경』 ‘도요(桃夭)’ 시의 내용이 부분 부분 발췌되고 ‘도요’ 시 전문을 기억하고 있는 독자라면 장편가문소설을 읽으면서 『시경』 ‘도요’ 시 전문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도요’ 시를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는 독자라면 장편가문소설에 부분적으로 제시된 ‘도요’ 시 구절을 통해 머릿속으로 ‘도요’ 시를 재구해 보게 된다. 이처럼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독자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단련시키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은 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전고를 단어, 구절, 문장으로 변주하여 제시하는 경우이다.

② 단어·어구·문장의 변주적 제시

- 관저(關雎) - 호구(好逑), 저구(雎鳩)새, 군자호구(君子好逑), 관저지락(關雎之樂), 관저유풍(關雎遺風), 관저(關雎)의 경사, 군자의 관관(關關)한 저구(雎鳩)라
- 하주(河州) - 하주(河州)의 숙녀, 하주(河州)의 요조(窈窕)한 숙녀, 하주(河州)의 사씨를 만난 문왕(文王)
- 건상섭진(褰裳涉溱) - 진수(溱水)를 건넌, 치마를 잡고 진수(溱水)를 건너다
- 맹광(盟光) - 덕요(德耀), 거안제미(舉案齊眉), 맹광(盟光)의 퍼진 허리, 고인(古人)의 상늬

- 투향(偷香) - 향도적, 한수(韓壽)의 투향(偷香)함
- 영설(詠雪) - 영설지재(詠雪之才), 영설(詠雪) 희문(戲文)의 재주, 영설(詠雪)의 공교함
 - 칠보시(七步詩) - 칠보(七步)를 넘지 못하여 제부인(諸婦人)의 글이 벌써 이뤄짐.
 - 백희(伯姬) - 백희(伯姬)의 고집, 백희(伯姬)의 불하당(不下堂), 문을 나감에 낮을 가리고 보모가 없으니 체화(體火)함
 - 송홍(宋弘) - 송홍(宋弘)의 아름다운 말씀, 송홍(宋弘)의 조강지처(糟糠之妻)는 불하당(不下堂)이라
 - 반첩여(班婕妤) - 장궁(長宮), 장신궁(長信宮), 첩여(婕妤)의 단장사(斷腸詞), 반첩여(班婕妤)의 장신궁(長信宮)의 환, 장신궁(長信宮)의 환선(紈扇)의 재배(再褻), 추풍(秋風)에 환선(紈扇)을 재배(再褻), 반첩여(班婕妤)의 백두음(白頭吟)
 - 진황후(陳皇后) - 장문(長門), 진황후(陳皇后)의 장문궁(長門宮), 장문(長門)에 기러기 소리를 느낌, 장문(長門)에 매부(買賦)하다
 - 노래자(老萊子) - 채의(彩衣), 반의(斑衣), 채의열친(彩衣悅親), 무채(舞彩)의 효(孝), 고인(古人)은 반의(斑衣)를 입어 부모의 웃음을 요구하다
 - 주공(周公)의 토포악발(吐哺握髮) - 주공(周公)의 일목(一沐)의 삼악발(三握髮)과 일반(一飯)의 삼토포(三吐哺)하는 덕, 한번 먹으며 세 번 먹음을 뺀 선비를 대접하다
 - 한신(韓信) - 한신(韓信)이 결식어표모(乞食於漂母)하다. 기식어표모(寄食於漂母)하고 수욕어과하(受辱於跨下)하다
 - 곽거(郭巨) - 자식을 죽여 부모의 감지(甘旨)를 위하다
 - 요(堯)임금 - 토계(土階) 위에 극양(克讓)하던 인덕(仁德), 토계삼등(土階三等)의 모자(茅茨)를 부전(不剪)하다
 - 탕왕(湯王) - 육사자책우상림(六事自責于桑林), 궁실(宮室)이 승여(崇歟)아 여알(女謁)이 성여(盛歟)아

‘관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장편가문소설에서는 태사의 부덕을 나타내는 전고로 들어오기도 하고 ‘관저’만으로 ‘부부간의 화락함, 어울리는 배필’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관저 시의 제1장인 “관관저구(關關雎鳩) 재하지주(在河之洲).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군자의 관관한 저구라’, ‘관저’ ‘호구’, ‘군자호구’, ‘관저의 호구’, ‘저구새’, ‘관저지락’, ‘관저의 경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장편가문소설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경』 ‘관저’의 세주(細註)에서는 이 시가 문왕과 태사가 서로의 배필이 되어 화락하게 지낸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고, ‘하주(河洲)’가 태사와 같은 요조숙녀를 만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태사와 같은 요조숙녀를 의미하는 ‘하주’, ‘하주의 숙녀’, ‘하주의 요조한 숙녀’, ‘하주의 사씨를 만난 문왕’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장편가문소설에서는 부덕과 요조숙녀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독자는 장편가문소설을 읽으면서 『시경』 ‘관저’ 시 전문과 세주(細註)의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이 알고 있는 ‘관저’ 시를 확인하고 음미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남편에게 박대당하는 여인의 처지나 심정을 나타낼 때 단골로 인용되는 전고는 ‘반첩여(班婕妤)’이다. 반첩여는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후궁인데 조비연(趙飛燕)의 모략으로 성제의 총애를 잃게 되어 장신궁(長信宮)에 칩거하게 된다. 반첩여는 가을이 되어 쓸모없게 된 부채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원가행(怨歌行)을 짓게 된다.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남편에게 박대당하는 상황을 서술할 때는 ‘반첩여’ ‘장궁(長宮)’ ‘장신궁(長信宮)’ ‘첩여의 단장사(斷腸詞)’ ‘반첩여의 장신궁(長信宮)의 한’ ‘장신궁(長信宮)의 환선(紈扇)의 재배(再褰)’, ‘추풍(秋風)에 환선(紈扇)을 재배(再褰)’, ‘반첩여의 백두음(白頭吟)’ 등으로 다양한 변주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곧 반첩여가 겪은 일련의 고난담이 장편가문소설에는

몇 가지 단어로 제시되기도 하고 ‘추풍(秋風)에 환선(紈扇)을 재배(再褙)한다’는 문장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독자는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나는 ‘반첩여’의 전고만으로도 ‘반첩여’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떠올리거나 재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고정된 단어나 어구나 문장으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전고를 변주적으로 제시하여 기지(既知)의 지식과 교양을 숙련하기도 하고, 미지(未知)의 지식과 교양을 새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독자의 지식과 교양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한다. 장편가문소설의 독서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의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고 연마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고의 작용은 사대부 여성 독자층이 장편가문소설에서 지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적극적으로 장편가문소설을 선택하여 읽도록 하는 흡인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3) 유교적 가치와 현실적 상황 논리의 이중적 제시와 중층적 독서화

전고의 또 다른 독서 역학적 작용은 동일한 형태의 전고가 유교적 가치와 현실적 상황 논리를 이중적으로 보여주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해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곧 같은 형태의 전고가 상황에 따라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기도 하고 현실적 상황 논리를 대변하기도 하면서 독자에게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지금 읽고 있는 전고를 포함한 현 텍스트의 맥락의 의미를 다각도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편가문소설에서는 ‘여성·부인과 관련된 전고’, ‘부모·형제의 윤리, 가정사와 관련된 고사’, ‘군신·치국과 관련된 전고’ 등이 두드러지는데 이 전고들은 여성의 부덕(婦德), 효, 우애, 충과 같

은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부덕, 효자·효녀, 우애, 충신·현군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인용되는 전고는 항목화 하여 목록으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똑같은 형태의 전고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상황 논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용되기도 한다. 『시경』의 ‘관저’ 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로 여성의 부덕, 화려한 부부, 요조숙녀의 의미를 드러내어 여성의 부덕과 여성의 부덕이 바탕이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상황을 표현할 때 인용된다. 그러나 장편가문소설에서는 ‘관저’의 시와 내용이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이나 욕망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인용되기도 한다. 다음은 ‘관저’ 시의 ‘하주 숙녀’, 문왕과 태사의 만남이 남녀의 애정 욕망을 대변하는 의미로 쓰인 경우를 발췌한 것이다.

(ㄱ) 하늘이 길을 인도하시고 삼세숙연이 중대하여 우연히 진궁의 화원에 서 한 번 유람하면서 소저의 곱고 아름다운 빼어난 얼굴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녀가 다르고 예법이 삼엄하니 문왕이 성인(聖人)이지만 하주(河洲)의 숙녀를 오매불망하여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셔서 시경 제 일편이 되었습니다. 나 인평은 속세의 남자입니다. 어찌 소저 같은 숙녀를 보고 사모하는 정욕이 없겠습니까? (『조씨삼대록』2권, 376면)

(ㄴ) 내가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수를 혈뜯는 듯하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니 자연스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생이 자염이를 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던 것처럼, 문왕께서도 성인이지만 하주(河洲)의 숙녀를 지나 깨나 늘 생각하셨다. 이는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양생처럼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한 경우는 없었다.” (『조씨삼대록』5권, 143~144면)

(ㄷ) 한림 임재홍이 비록 도를 닦는 군자이나 소씨의 현철한 미모와 재주에 마음이 쏠리니 성인도 하주(河洲)에서 구하시던 바니 이미 성혼한 나이에 조부모의 명이 신방에서 쌓으로 노닐기를 허락하셨고 예로써 조강지처로 맞이하였으니 어찌 그 사랑이 평범하겠는가? 꽃 같은 모습과 별 같은 눈에 화려한 기운이 가득하니 동군(東君)의 온화한 바람이 따스하여 태양을 이끄는 듯하였다. 임재홍이 허리띠를 풀고 촛불을 물리고 혼쾌히 나아가 소저의 가늘고 고운 몸을 이끌어 옥으로 된 침상의 이불 요위에 원앙 장막을 함께 하고 있으니 비단 병풍과 장막이 휘황한 가운데 비취금(翡翠衾), 봉황침(鳳凰枕)에 두 개의 옥이 완전하였다. (『임씨삼대록』3권, 288면)

(ㄱ)은 『조씨삼대록』의 양인광이 월염을 보고 반해 월염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양인광은 『시경』 제1편의 ‘관저’ 시를 문왕이 성인이지만 하주의 아름다운 숙녀인 태사를 지나 깨나 잊지 못하고 욕망한 것으로 해석하여 자신이 월염의 미모에 반해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문왕과 태사의 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관저’시는 군자와 요조숙녀가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양인광이 자신의 남성적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끌어들이는 전고가 된다. 『시경』 ‘관저’시의 일반적인 의미인 ‘화락한 부부상’은 남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육체적 사랑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성인인 문왕도 태사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반하여 남성적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곧 ‘관저’ 시의 문왕과 태사의 전고는 양인광이 진궁의 화원에서 조월염에게 반해 한밤중에 조월염의 방안에 들어가 조월염의 손을 잡았던 행동도 칭찬 남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인용되는 것이다.

『시경』 ‘관저’가 남성 주인공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반해 애정 욕망을 드러내면서 그 애정 욕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초공이

소경수의 행위를 두둔하는 (ㄴ)의 예문에서도 나타난다. 조씨 가문의 사위로 들어오는 소경수는 대현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지만 조자염의 모습을 보고 반해 상사병이 생긴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초공은 소경수가 자염을 보고 반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는 욕망을 문왕이 하주의 숙녀를 오매불망 사모한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반하여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경』 ‘관저’시를 끌어들이며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관저’시는 화락한 부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 욕망이 정당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고로 들어오는 것이다.

(ㄷ)은 『임씨삼대록』의 대현군자인 임재홍이 아름다운 아내 소씨의 현철한 미모와 재주에 반하여 사랑을 나누는 대목을 서술자의 목소리로 서술한 부분이다. 서술자는 대현군자 임재홍이 아내 소씨에게 매혹되는 것은 문왕이 태사를 구한 것과 같은 일임을 설명하고 뒤이어 임재홍 부부의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대현군자인 임재홍이 소씨에게 반하여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을 나누는 것을 ‘성인도 하주에서 구하시던 바’라는 ‘관저’의 내용을 끌어들이어 표현하는 것은 임재홍과 소씨의 사랑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장편가문소설에서 『시경』의 ‘관저’ 시는 여성의 부덕, 요조숙녀, 화락한 부부관계를 의미하며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는 전고로 널리 쓰이지만 남녀의 자연스러운 애정 욕망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현실 논리를 대변하기 위한 전고로 쓰이기도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시경』 ‘관저’ 시의 내용과 문왕과 태사의 관계를 끌어들이어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똑같은 형태의 전고가 어떤 경우에는 유교적 가치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의 상황 논리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원 텍스트의 의미가 현재 읽고 있

는 장편가문소설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인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개가(改嫁)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 남자에게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거나 몸을 맡기는 것은 유교적 가치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장편가문소설에서 여성의 개가(改嫁)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전고는 탁문군이 사마상여에게 개가(改嫁)한 사건과 진평의 아내가 다섯 번 개가(改嫁)한 사건이다. 악한 남성 인물이 여성 주인공에게 자신의 구애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면서 탁문군의 개과와 진평 아내의 개가를 거론한다. 중국에는 탁문군과 진평 아내가 영화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며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음란한 여성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때 탁문군과 진평의 아내를 빗대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이 두 경우는 탁문군이 사마상여에게 개가한 것과 진평의 아내가 다섯 번 개가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전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편가문소설에서 탁문군과 진평 아내의 개가는 유교적 가치만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탁문군이 사마상여에게 개가한 것과 탁문군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마상여를 선택하고 살림을 꾸려나기 위해 술장사를 했던 일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ㄷ) 여자의 도는 지아비의 집이 괴로워도 한스러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저는 재상가의 귀한 사람으로서 남의 아래가 되었으니 평온하지 않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못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맹광(孟光)의 남편 공경하는 것과 문군(文君)의 술 따르기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비록 진중하

지 못하지만 여자에게 서러움을 끼쳐서 장인어른의 은혜를 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니 소저가 만일 저 사람의 저러한 욕에 모두 화를 낸다면 장차 몸을 보전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저 사람은 곧 나의 조강지처(糟糠之妻)이지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저렇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좋은 새 배필을 원하였고, 소저를 하늘이 운명적으로 주셔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소현성록』 4권, 111면)

위의 예문은 『소현성록』의 김현이 자신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소수빙에게 첫째 부인인 취씨의 투기와 악행을 참으라고 하며 남편을 공경했던 맹광의 전고와 가난한 사마상여와 살아가기 위해 술장사를 했던 탁문군의 전고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탁문군은 한나라 대부호 탁왕손(卓王孫)의 딸로 처음에 과부가 되어 친정에 있었는데 탁왕손이 베푸는 연회에서 사마상여의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사마상여를 사모하게 된다. 사마상여의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탁왕손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자 탁문군은 사마상여를 따라 청두에 있는 그의 집으로 한밤중에 몰래 달아난다. 사마상여의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되자 탁문군은 선술집을 차려 생활하면서 남편의 출세를 돕는다. 『소현성록』의 김현은 소수빙에게 남편의 가난함을 탓하지 않고 술장사를 하며 남편을 이끌었던 탁문군을 거안제미(擧案齊眉)로 유명한 맹광과 동렬에 두며 탁문군을 부덕을 갖춘 여성으로 평가한 것이다. 첫 남편이 죽자 사마상여에게 반해 도망치듯 개가한 탁문군의 행위는 일부종사(一夫從事)해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에 의거하면 부정적인 여인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지만 남편의 가난을 불평하지 않고 술장사로 끼니를 꾸려나간 탁문군의 행동은 현실적인 판단에서는 부덕을 실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가를 하고 술장사를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던 탁문군을 유교적 명분론

으로 바라보느냐 현실적인 논리로 보느냐에 따라 탁문군의 행위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진평의 아내가 다섯 번 개가했던 일을 끌어들이며 현실적 상황 논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㉞) 다시 생각해 보건대, 부인의 절개가 비록 중하지만 또한 의리도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낳지 않았으면 지아비 중한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청컨대 부인은 내 염려와 장인·장모님께 불효함을 생각하여 좋은 가문·귀한 집안의 군자를 만나 청춘을 괴로이 보내지 말고 자녀를 낳아 화락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는 장인, 장모님께 불효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아울러 부인의 평생토록 화락할 수 있는 길이며, 아래로는 내 염려를 그치게 하는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진평(陳平)의 아내가 다섯 번 개가(改嫁)하였지만 진상국이 중시하는 부인이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굳이 그대를 낮게 여기겠습니까? 이제 내가 부인을 대하여 빛나는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안타까워 차마 보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로 정 때문이 아닙니다. 대장부가 이미 말을 내었는데 어찌 내외를 달리하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하여 말하는 것이니 부인은 고집하지 말고 순조로운 길을 생각하여 내 말을 저버리지 마시오.”(『소현성록』 6권, 25면)

위의 예문은 『소현성록』의 소운성이 부인 형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진평 아내의 개가를 인용한 것이다. 임금이 늑혼으로 명현공주와 소운성을 혼인시키기 위해 첫째 부인인 형씨를 친정으로 보내라 하고 형씨가 죽어도 소씨 가문의 무덤에서 죽겠다고 굳은 절개를 내보이자 소운성이 형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소운성은 부인의 절개도 중요하지만 장인 장모와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형씨가 새롭게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도모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면서 진평의 아내가 다섯 번이나 개가했어도 결국에는 재상 부인이 되어 영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일을 언급하며

형씨의 굳은 절개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소운성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염려와 형씨 부모가 염려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부탁하며 진평의 아내가 개가하였지만 재상의 아내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진평의 아내를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형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한(漢)나라의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통일시키는 공을 세운 진평은 처음에 형과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장가들 때가 되었지만 너무 가난하여 쉽게 장가를 들 수가 없었다. 그때 호유향에 장부(張負)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장부에게는 곱고 사랑스런 손녀가 하나 있었고 그녀는 다섯 번이나 시집을 갔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이내 죽어버려 그 뒤로는 아무도 그녀에게 장가들려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진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며 한나라의 재상이 된다. 진평 아내의 다섯 번 개가는 장편가문소설의 맥락에 따라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다. 여기서 진평의 아내가 다섯 번 개가한 사건은 음란한 여성의 욕망을 비난하기 위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령으로 절혼할 수밖에 없는 형씨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소운성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곧 진평의 아내가 다섯 번 개가한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비판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논리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개가가 선택되고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장편가문소설의 유교적 가치의 이면에 있는 현실적 논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편가문소설은 똑같은 내용과 이야기 구조를 가지는 전고를 현 텍스트에 끌어들이면서도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현실적 상황 논리를 드러내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독자는 현 텍스트를 읽으면서 원 텍스트의 전고의 맥락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독자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가치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제시하여 유교적 이념과 가치가 정당하다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의 애정 욕망, 여성의 개가와 정숙하지 못한 행동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서술의 문면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유교적 이념만을 드러내지 않고 인물의 발화나 우스개 소리를 통해 현실적 상황 논리를 드러내며 현 텍스트에 다성적인 목소리가 공존하도록 하는 경우⁵⁾도 있다. 이러한 맥락과 유사하게 전고도 현 텍스트에서 독자가 새로운 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사대부 여성 독자층의 의식을 고정된 유교적 가치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 논리를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독자는 장편가문소설에서 중층적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고 보다 풍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만약 현대 독자가 장편가문소설을 읽는데 전고에 대한 친절한 주석이 없다면 장편가문소설의 의미는 제대로 해독되기 어렵고 장편가문소설의

5) 참고,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9, 107~111쪽.

재미는 반감되기 쉽다. 이처럼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현대 독자에게는 가독성(可讀性)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사대부 여성 독자들을 작품 속으로 이끌어 독자가 작품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사대부 여성 독자들은 친절한 주석 없이도 장편가문소설을 쉽게 읽어내려 갈 수 있었으며 전고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맛에 장편가문소설을 탐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편가문소설의 전고는 작가와 독자가 공히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에게는 해석의 공유지(共有地)가 된다. 이 해석의 공유지에서 장편가문소설의 독자는 조선조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사대부 여성의 일상적 삶의 관심사에서 구축된 사대부 여성의 계층적 지식과 교양을 확인하여 장편가문소설이 읽을 만한 텍스트라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전고가 단어, 어구, 문장으로 변주적으로 제시되어 독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지식을 알게 하고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확인하도록 하여 지식과 교양 세계를 단련하기도 한다. 더불어 동일한 전고가 한 텍스트에서 유교적 이념을 대변하기도 하고 현실적 상황 논리를 대변하기도 하면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중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장편가문소설의 서사적 세계는 파란만장하면서도 다채롭다. 장편가문소설의 서사적 내용과 구성이 사대부 여성 독자층에 어필하기도 했지만 전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장편가문소설의 흡인력으로 작용한다. 전고는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채워가는 적극적 해석자로 기능하게 하여 사대부 여성 독자들을 장편가문소설의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1~4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장시광·조용호 역주, 『현몽쌍룡기』1~3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조용호·정선희·전진아·허순우·장시광 역주, 『조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 한길연·김지영·정언학 역주, 『유씨삼대록』1~4권, 소명출판, 2010.
- 김지영·최수현·한길연·서정민·조혜란·정언학 역주, 『임씨삼대록』1~5권, 소명출판, 2010.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9, 107~111쪽.
- 김성룡, 「용사 이론의 시학적 의의」, 『국어국문학』120집, 국어국문학회, 1997, 170~176쪽.
-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433~471쪽.
- 대곡삼번(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85, 70~74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205쪽.
- 이원수,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175~191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43~268쪽.
- _____, 「대장편 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한국문화연구』13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83~109쪽.
-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독자」, 『동양고전연구』29집, 동양고전학회, 2007, 154~165쪽.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203~210쪽.
- 정창권, 『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39~54쪽.
- 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 계명문화사, 1996, 7~304쪽.
- 조현우, 『고전서사의 허구성과 유가적 사유』, 보고사, 2007, 90~96쪽.
-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8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

구원, 2005, 30~56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187~249쪽.

ABSTRACT

The Study on the Dynamics between Reading and authentic precedents
of Korean Long Piece Novel

Kim, Moon-hee

The aim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authentic precedents in the Korean Long Piece Novels and its impact on the reading process. The authentic precedents in the Korean Long Piece Novels play a number of roles for the readers to be absorbed in the story. First, the authentic precedents in the Korean Long Piece Novels represent the level of knowledge and culture of the women in noble families and thus produce intelligible reading context for the readers. Second, authentic precedents allow readers to understand their exact meanings, because authentic precedents with the same meanings are expressed in various formats, such as in words, phrases or in sentences. In addition, readers are able to learn knowledge and culture from reading Korean long piece novels by reviewing what they had previously known. Third, an identical form of authentic precedents may reinforce Confucian notion or realistic situational logic within a single text. Through such reading process, the readers are able to develop a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multifaceted meaning of the text.

Key Words Korean Long Piece Novel, authentic precedents, women readers in noble family, Intelligible reading, Learning by reading, multifaceted reading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